

밀레, 맛벌이 부부용 S4 시리즈 진공청소기 출시

- 저소음, 강력한 흡입력, 공기정화기능까지 갖춰
- 레드, 옐로우, 터키 옥색 등 화려한 컬러 선택

독일 명품가전 밀레(밀레코리아대표 안규문, www.miele.co.kr)는 2일 '맛벌이 부부'를 겨냥해 화려한 컬러와 저소음, 공기정화기능을 겸비한 진공청소기 S4 시리즈 3종을 새롭게 출시한다.

이번에 출시하는 S4 시리즈 진공청소기는 2030세대가 선호하는 레드와 옐로우, 터키 옥색 등 화려한 컬러와 퇴근 후 밤에 청소기를 돌려도 소음 걱정이 없도록 저소음으로 세팅된 것이 특징이다. 또 세계 최초로 인증 받은 HEPA 필터와 9겹의 필터층으로 구성된 먼지봉투는 흡입된 공기를 100% 정화해 재배출함으로써 실내 공기정화기능까지 갖췄다.

최대 출력 1800W인 신제품은 밀레가 직접 개발한 저소음 모터와 첨단 사일런트 세팅을 탑재해 기존 제품에 비해 소음을 약 7dB 낮췄다. 최대 출력으로 가동했을 때 전기 주전자의 소음보다 더 조용하다. 때문에 늦은 밤 청소기를 돌려도 방간 또는 층간 소음 걱정이 없다.

또 바닥에 밀착력이 높은 헤드설계와 틈새나 바닥의 미세먼지까지 흡입하는 강력한 흡입력을 통해 청소기를 돌린 후 걸레질이 필요 없어 청소시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신제품 S4 시리즈에 장착된 하이클린 먼지봉투는 2단계의 성긴필터층과 집진 충전재, 미세필터층, 못이나 유리조각 등 예리한 물체에 의한 찢어짐을 방지하는 네트층 등 총 9겹의 필터층으로 구성돼 있다. 완벽한 필터링으로 청소 중 먼지날림이 없고, 못이나 뾰족한 물질에 의한 먼지 봉투 손상을 원천 봉쇄했다.

또 신제품에 장착된 먼지봉투는 공기흐름 개선을 통해 기존 제품에 사용량이 25% 증가했으며, 한 번 갈아 끼워 약 3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완전 밀봉돼 교체 시 먼지날림이 없고 교체 시 자동으로 알려주는 것이 특징이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핸들은 그립감이 뛰어나 주부들이 사용하기 쉽고,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텔레스코픽흡입관과 청소 중 일시정지를 위한 파킹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이밖에 원형솔과 쇼파용솔, 틈새솔 등의 악세서리 솔이 있어 문틈이나 구석진 곳, 커튼, 소파, TV나 모니터도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다.

한편 밀레 진공청소기는 최소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됐으며,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밀레는 1000시간 이상의 모터 테스트와 10000번 이상의 본체 충돌테스트 등 8가지 이상의 부위별, 기능별 혹독한 테스트를 거친 제품만을 시판하고 있다.

가격은 S4212(레드, 옐로우)제품이 425,000원, S4282(터키 옥색)제품이 465,000원이며, 무상보증기간은 2년이다.

제품 문의: (02) 3451-9451 www.miele.co.kr